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17년 포어 §

다시 거룩한 교회로!
(롬1:17 레19:2)

十 행동 지침十

- 1. 말씀과 비전으로 하나되는 교회
- 2.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
- 3. 기도와 전도의 사명을 다하여 부흥하는 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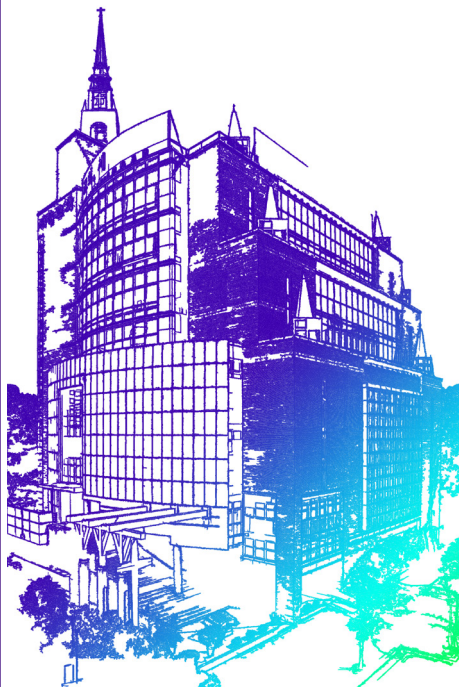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www.seoulchurch.or.kr>

 **조선지서 강해 - 미가서**

하나님같은 이 없도다

(미가 7:1~13)

원로목사이종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미7:18).
우리의 죄를 사유해 주시고 인자를 기뻐하시며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같은 분이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 미가서의 주제입니다.
미가는 “누가 여호와 같으리요”라는 뜻입니다. 미가는 마침 자기 이름의 의미와 같은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을 높이고 자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으로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유일무이하시고 독특하신(unique)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 아니라 오직 하나뿐인 분이십니다. 그는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피조물인 인간들이 도무지 흉내낼 수 없는 분입니다.

1. 심판 주 하나님

때때로 사람이 세상을 심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도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할 피조물입니다.

(1) 도덕심의 타락

“재앙이로다 나여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1절).

‘나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를 말합니다.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란 의인이 없다는 뜻으로 교회 안에 참으로 믿는 자를 찾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처음 익은 무화과’는 오래 믿은 사람을 말하며 역시 그런 사람들 가운데도 의인이 없다고 미가는 한탄합니다. 한 국가가 멸망할 때는 먼저 그 민족이 도덕적으로 부패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류 문화역사의 국가들은 모두가 도덕심에 의해 무너지고, 도덕심에 의해 세워집니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2절).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3절).

뇌물을 먹고 사욕을 취하는 재판관과 욕심에 가득찬 권세자가 서로 결합하니 나라의 앞 길이 불보듯 뻔합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도덕심의 타락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 지도력의 상실

하나님께서서는 한 국가에 지도자를 세우시어 역사를 이끌게 하십니다. 그런데 세움을 받은 지도자가 지도력을 상실한다면 그 사회는 망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하

나님의 심판 방법 가운데는 외적인 것도 있지만 내부적으로 지도자가 타락하여 분별력을 상실하고 미련해지므로 나라가 어지러워지는 방법도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미 지도자의 죄를 심각하게 지적한 바 있습니다(미 3장).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고 약한 자를 억울하게 하며 권세자는 자기 욕심을 채운다는 것은 부정한 돈거래, 정치권의 청탁성 뇌물과 결코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입니다. 정권을 잡은 지도자가 백성을 위하여 희생해야 할 자리에서 뇌물을 받아 정권을 바르지 못하게 이용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3) 가정의 붕괴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네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네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5절).

인간관계가 파괴되니 서로 불신하고 심지어 원수가 집안에 있습니다. 가정의 붕괴입니다. 이것은 외적인 고민이 아니라 내적인 고민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두사”(롬1:24).

2. 구원 주 하나님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셨느니라”(15절).

하나님은 과거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 같이 미래에도 구원하실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우러러 보는 것입니다. 오직 내가 하나님을 우러러 볼 때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7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성취와 심판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9절).

하나님의 구원 약속이 확실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겁게 징계하시는 것 같으나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미가서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이 났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으나 미가는 그것으로 예언을 끝내지 않았습다. 그는 과거에 구원하신 하나님이 미래에도 구원하실 것을 예언하며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이 때에 우리는 돌이킬바를 돌이키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기회는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하나님만 우러러 보고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왕이 나셨도다!



성탄축하특별찬양 : 17일(주) 오후 5시, 임마누엘 찬양대

성탄축하찬양예배 : 24일(주) 오후 5시, 본당

성탄절새벽예배 : 25일(월) 새벽 5시, 본당 / 성탄절축하예배 : 25일(월) 오전 11시

성탄절을 맞아 우리 교회는 다양하게 예수님의 오심을 축하드립니다.

17일(주) 찬양예배시간에는 임마누엘 찬양대에서 준비한 특별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24일(주)에는 성탄축하 찬양예배를 오후 5시부터 본당에서 드린다. 성탄절 당일에는 새벽 5시에 성탄절새벽예배를 드리고 성탄절축하예배는 오전 11시에 1회 드리며, 성탄감사헌금을 드린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

을 축하하는 마음으로 맞이하는 즐거운 성탄절기가 되도록 기도한다.

또한 12월 16일(토) 오후 3시에 스테반회 총회가 101호에서 열리며 17일(주)는 교구 총회가 오후 3시 30분, 본당에서 열리고 24일(주)는 교사 총회가 오후 3시 30분, 본당에서 열린다.

연말 연시를 맞아 바쁘더라도 꼭 참석하여 성도간에 격려하며 2018년을 맞이하도록 힘쓰자.

2018 섬김위원 임명 권사회 총회 / 선교회 · 전도회총회

섬김위원 임명 : 주일 I·II·III 부 예배 시

권사회 총회 : 3부예배 후, 본당 / 선교회·전도회 총회 : 오후 4시, 본당

오늘 I·II·III부 예배 시 2018년 교회 섬김위원을 임명한다. 남녀 서리집사, 교구일꾼, 각 위원회, 교사, 찬양대원 등 각 부서 섬김위원을 임명한다.

오늘 주보와 함께 배부된 2018년도 섬김위원 명단에 본인의 이름이 기재된 모든 부서의 섬김위원들은 감사함으로 임명 받아 2018년 한 해 교회를 섬기는 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한다.

모든 2018년도 섬김위원들은 2018년 1월 1일자로 해당 부서 봉사를 시작한다.

2017년도 섬김위원들은 12월말까지 맡은 바 책임을 감당하며, 12월 한달 동안 모든 업무를 인계한다.

또한 권사회 총회가 3부 예배 후 본당에서 열린다. 선교회·전도회 총회가 오후 4시에 본당에서 열린다.

많은 성도들의 참석 바란다.



교회회복을 위한 기금 기부자 명단

정수길 장창수/박혜정 김동진/신소영 김현영 김세호
유운순 김지수/김순진 안선광/고영숙

(다음 주 계속)

* 기부금 입금 계좌 :
신한 110-481-143925 노문환(서울교회장로회)

오늘 세례식 문답 실시

금년도 마지막 세례식인 12월 세례식이 12월 17일(주) 찬양예배 시 있다.

세례/입교/개종/유아세례/대상자로서 문답청원서를 작성 제출하신 성도들은 세례를 위한 문답을 위해 오늘 오후 1시까지 602호로 오기 바란다.

오후 1시부터 문답 준비가 있으며 2시부터 문답이 있을 예정이다.

※ 자세한 내용은 세례준비반(602호) 또는 사무국으로 문의하기 바란다.

예수의 비유

문화인의 교만 I

(눅 18:9-14)

원로목사 이종윤

사람과 짐승의 차이가 있다면 짐승은 태어난 조건대로 약육강식을 하면서 살지만 사람은 주어진 환경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만들고 개량하고 가꾸는 작업을 부단히 하여 문화 활동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문화 활동은 하나님께서 인류의 조상이 되는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인간들에게 주신 참으로 귀한 축복이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문화명령(cultural mandate)이라고 하며 인간은 하나님의 이 명령을 고귀하게 받아들여 역사 속의 문화를 창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를 살펴보면 문화명령은 창세기 1장에 주어졌지만 3장에 와서 최초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를 하고 4장에서부터 문화 활동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동생을 죽인 최초의 살인자 가인에 의해서 성이 쌓아지게 되었고, 그의 6대 손자인 아발을 통해서 가족이 키워졌으며 그 동생 유발은 악기를 다루었으며 다른 형제 두발가인은 무기와 도구를 제조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인류의 문화는 시작되는데 불행하게도 문화는 타락한 인간에 의해서 창조되었기 때

문에 죄악으로 오염되었고, 문화 자체도 죄 속에서 어려움을 겪어야 했던 것입니다.

인간은 어느 정도 안전이 보장되고, 그것을 즐길 수 있는 상황이 되면 향락을 즐기려는 본능이 나타나게 됩니다. 성경은 창세기 4장에서 하나님을 우선하고 하나님 앞에 마땅히 예배를 드려야 할 인생들이 쾌락을 즐기는 일을 우선하고 있는 모습을 라멕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라멕은 인류 최초로 일부 다처주의를 행한 사람으로서 아내를 두 사람 얻었습니다. 그리고 각종 문화 활동의 시조가 되는 아들들을 둔 아버지로서 교만한 대로 교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양편에 두 아내를 거느리고 "내가 조금 손해를 본 일에 대해서 크게 복수했노라"고 외치며 "보아라 내가 얼마나 위대한가! 내가 얼마나 강한 존재인지 나를 한번 쳐다보아라"고 자랑을 했습니다. 그는 자기를 위하여 법을 만들어서 "가인과 같은 인간을 해치려는 자는 벌이 죄과와 7배가 되지만 나같이 중요한 자에 대한 죄과는 77배가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인간의 문화는 이와 같이 교만한 자에 의하여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교만한 자에 의해 만들어진 문화는 타락한 문화요, 오염된 문화입니다. 그러므로 인류가 창조한 모든 문화는 하나님 앞에 구원이 요청되는 문화입니다.

본문의 비유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기도를 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만 또 한편 교만이 가득한 부패한 인간은 구원이 요청된다는 사실과 교만에 빠지기 쉬운 문화인 역시 구원이 요청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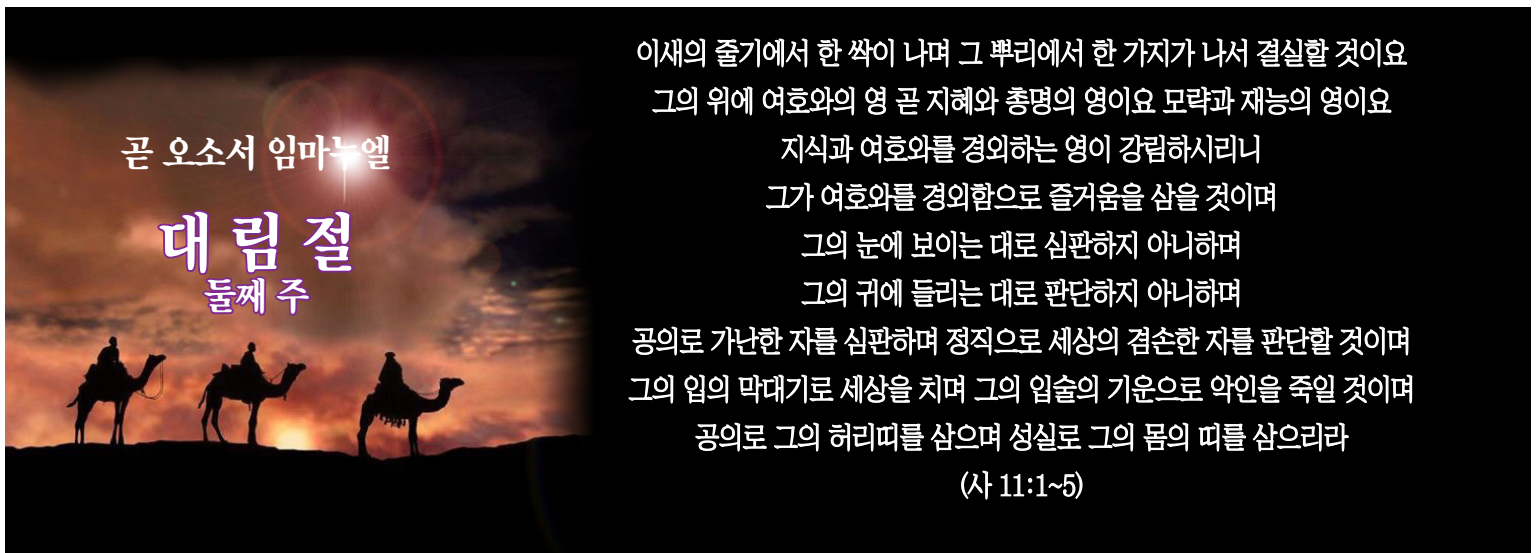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진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잠 16:18).

바리새인들은 나쁜 사람이라는 선입견이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신랄한 책망을 받은 적이 있는 바리새인들에 대해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라는 선입견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살던 시대에서 대단한 위치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특별히 율법을 강조한 사람들로 니고데모나 사도 바울이 바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이들은 오늘의 표현대로 하면 문화인이라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그러면 현대판 바리새인은 누구입니까? 존경받는 지식인, 특권층에 속한 부유한 사람들,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운택한 문화시설을 갖추고 즐기는 사람들 그들은 분명히 외형적으로 현대의 바리새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공통점을 찾는다면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은 것도 다름이 아닌 교만 때문이요 오늘도 이 사회에서 바로 이런 그룹에 속한 사람들이 가장 빠지기 쉬운 죄가 바로 교만의 죄입니다. 인간은 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환경이 좋아지고 부유해지고 안락해지면 그에 따라 교만도 자꾸 치솟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자기를 낮추어야 합니다.

(다음주 계속)



곧 오소서 임마누엘

대림절 둘째 주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와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사 11:1~5)

대림절 단상

섬김의 주님, 닦기 원합니다



위성남 권사 (12교구)

2017년, 올 한 해는 그야말로 다사 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세상의 본이 되기를 노력한 서울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

선을 행하되 낙심치 말라하신 주님 말씀의 깊은 뜻을 다시금 새겨보게 된 한 해였습니다. 세월은 살같이 빨라 이제 2017년의 끝까지 달음질쳐왔고 소란하기만 한 세상 중에도 어김없이 성탄절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성탄절은 상업화되어 이 날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잘 보이지 않는 듯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세태를 뭐라 탓하기에 내 신앙 역시 이기적인 것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도 내 기도는 자녀의 출세나 생활의 풍요함을 구하던 세베대의 어머니와 같지 않은가?

의 어머니와 같지 않은가?

성탄절, 이 날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영광의 주님, 하나님이신 분이 그 영광을 마다하시고 자기를 비워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날.

성탄절을 기다리는 대림절 아침, 주님 닦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제게 주님은 당신의 오심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마 20:28).

허리에 수건을 동이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섬김의 주님의 모습에 저를 대입해보면서, 그 주님이 제게 부탁하신 제 주변 사람들을 떠올려 봅니다.

그리고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간구하옵기는, “섬김의 주님 닦기 원합니다. 참 마음으로.”



간구

한상준 집사 (9교구, 시인)

난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강건하게 해 주시길 기도했네..
 그러나 주님은 나에게
 육체에 가시를 주었네
 세상에서 인내와 연단을 통한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난 하나님께
 큰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물질적 풍요와 건강한 육체
 다른 사람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했네..
 그러나 주님은 나에게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으며
 그 약함속에 주님께서 함께하며
 나를 다스리기 전에
 네가 먼저
 섬김의 도를 시행하라 하셨네...

난 하나님께
 평안한 삶을 위한 지혜와 능력과
 부와 명예와 권세를 달라 기도했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하시며
 이 모든것은 네게 이미 주었노라고...

대림절 단상

성탄절의 참된 의미를 되새기며



장애순 권사 (9교구)

젊은 시절, 성탄절 새벽이면 천사의 기분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새벽송을 부르고 다녔습니다. 밤새 불을 밝히고 주무시지 않고 기다리던 성도들의 집에서 대접받은 따뜻한 음식으로 잠시나마 몸을 녹이고 때론 선물도 받아 오던 기억들이 떠오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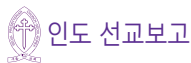
요즈음에는 주거환경이 변해서인지 새벽성가 같은 것을 찾아볼 수도 없고 사람들의 정서도 변해서 성탄절을 공휴일쯤으로 생각하는 세태가 만연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계절엔 찬양대를 통해서 '헨델의 메시아'를 많이 듣게 되고 그 아름다운 음악을 통해 성탄의 의미를 되새겨 보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메시아의 곡들을 듣고 있노라면 '어떻게 이 이상 하

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하는 벽찬 감동이 밀려옵니다. 특히 절정에 이르러 할렐루야 찬양이 나올 때면 초연 시 청중이 일어났던 것에서 유래한 것이 아니더라도 온몸에 흐르는 전율로 자연스레 자리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헨델이 천재적인 음악가라서 이런 곡이 나왔다가보다 주님의 위대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로 이 같은 곡이 탄생되었다고 봅니다.

죄로 인해 죽었던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은 창세기 이후 성경 곳곳에 예수님에 관한 예언과 그 성취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같은 말씀에 입각해 예수님에 관한 예언과 탄생, 수난과 속죄, 부활과 영생에 관해 웅대하고 장엄한 음악으로 영감있게 표현한 메시아를 감상하면서 온 세상 전 인류의 구원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고 크리스마스의 참된 의미를 되새겨 보고자 합니다.





인도인에 의한 인도선교를 위하여

이제 인도선교는 성장의 시기와 더불어 성숙의 시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인도 선교가 2,000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개신교 선교의 역사가 300년의 역사를 나타내고 있지만 인도인들이 마음 문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선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인도인에 의한 인도선교를 가능하도록 신학교를 통한 복음전도인 양성과 교회개척을 통해 인도의 자립선교를 가능케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신학교 사역과 전도인 양성을 중심한 선교의 사역은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1. Union Biblical Seminary 교수 사역

조범연 선교사는 2006년부터 이종윤 원로목사님의 추천으로 인도의 대표적인 신학교인 UBS 신학교에 선교학 교수로 부임하여 지금까지 약 100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여 인도교회의 지도자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인도 신학교에는 선교학 교수가 부족하여 저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조범연 선교사는 석박사 과정에서 교수요원들을 양성함으로써 인도신학교에 교수요원을 수급하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미 조범연 선교사와 그 후학들로 구성된 선교학 교수진으로 구성된 학회는 인도에서 활발한 학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동정

■ 이종윤 원로목사는 11일(월) 대학동기생 연말 송년모임에 참석한다. Save N.K., 김상철기념사업회, 미래한국미디어 송년의 밤 행사 경건회를 인도한다. 12일(화) 한장총증경회장단 간담회를 갖는다.

■ 연주회 : 4교구 백경화 권사(가브리엘 찬양대 지휘자, 당진시립예술단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 제 24회 당진시립합창단 정기연주회 『STELLA NATALIS - 별의 탄생 & 행복한 겨울 이야기』 12월 14일 (목) 오후 7시 30분 당진 문예의전당. 참석을 원하는 성도들은 가브리엘 찬양대에 문의 바란다.

■ 금주의 식사 : 교회제공



2. 나갈랜드 어메이징 그레이스 신학교 본관 2층 미장 공사 중

신학교 본관의 2층 공사가 막바지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제 슬라브를 마치고 내외벽의 미장공사를 하는 중입니다. 베란다까지 140평이나 되는 큰 건물이다보니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3. 아쌈 지역에 동일 영어 초등학교를 시작하며

인도에서 가장 좋은 전도의 매개체는 교육사역입니다. 교육사역은 현지인들에게 거부감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식이고 어린이들은 거의 100% 전도율을 보입니다. 힌두교도와 무슬림들이 대다수로 사는 아쌈 지역에 동일교회가 기독교 미션 영어 초등학교를 개교함으로써 지역복음화에 앞장설 것입니다.

시대의 흐름을 보면서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은 것을 체감합니다. 그러기에 남겨진 시간에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우리 사명자들의 의무인 것을 깨닫습니다. 인도는 지금 선교의 마지막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현재 강력한 힌두정권은 외국 기독교 선교사 수백명을 이미 추방하였으며, 기독교 단체의 자금줄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수많은 인도의 기독교인들은 억울하고도 부당한 박해 속에서 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지금과 같은 기독교 선교의 황금기는 조만간 종식을 고하게 될 것이고, 외국인 선교사들은 이제 전면 무대에서 서서히 사라지면서, 인도인에 의한 인도선교를 위



한 기틀을 만들어야 할 시기가 왔습니다.

이제 수년 내로 인도의 신학교에 기반이 잡히면, 인도교회의 지도자들에 의해서 신학교 운영이 되도록 하고, 인도의 교인들이 인도의 교회를 세워 나가도록 해야 할 때입니다.

조범연 선교사 드림

서울 주간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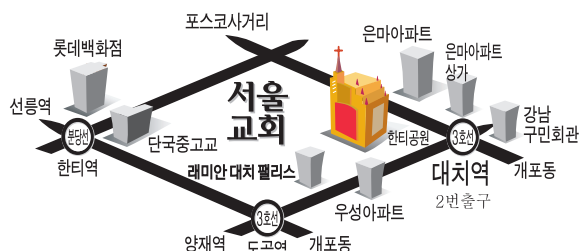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소망이 넘치는 대림절이 되게 하옵소서.
2. 임명된 2018년도 성김위원들의 열심과 헌신과 사랑으로 우리교회가 더욱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3. 오직 말씀과 기도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본당 II, III, IV 층
	II 부 예 배 (영어동시통역)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양예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15분	
	젊은이 예배	오후 2시	
수 요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11시	본당 II, III 층
	II 부 예 배	오후 7시	
새 벽 예 배	오전 5시 30분(매일)	본당 II 층	
금 요 기 도 회	오후 8시	본당 II 층	

■ 교회 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